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동반자용 지침

각 주간의 피정 체험에 관하여

피정 동반에 관한 지침

개요

이 지침들은 피정을 동반하는 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12주간 기도한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신수련을 잘 아는 사람에게도 유용할 것입니다. 다만, 혼자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지침을 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갖는 하느님 체험은 매우 고유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지침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맡기기보다 스스로 기도를 평가하려는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피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내면화하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체험입니다. 이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따르는 종교적 진리와 도덕적 제약이 외부에서 부과되었다고 느낀 사람도 피정 중에 기도를 하면서 그리스도 및 다른 이들과 맺는 은총의 관계를 더욱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먼저, 피정에 전념한다는 것은 이 책에 제시된 대로 기도를 매일 한다는 의미라고 피정자들에게 설명하세요. 이 피정을 하는 동안에는 이 기도가 다른 기도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위해 정해 둔 장소와 시간에 '그곳에 있음'으로써 하느님께 관대함을 보이도록 피정자를 격려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언제나 자비로이 응답하십니다.

교재 시작 부분을 피정자들과 훑어볼 준비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소개하는 글이 있다고 알려 주고 12주간이 각각 **들어가는 말**, **기도 도움말**, 좌우 양면에 배치된 매일 기도 안내, 한 주간을 돌아보는 페이지, **표지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여 주세요.

기도할 때 유용한 점들을 피정자들에게 일러 주세요. 매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날 자료를 보는 것입니다. 전날 저녁에 보면 더 좋지만, 적어도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봐야 합니다. **오늘의 요점**에서 네 가지 지침을 읽게 되는데 특히 **청하는 은총**을 강조하세요. 우리가 신앙과 사랑에서 자라도록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페이지를 기도 장소에 펼쳐 두라고 이야기하세요. 거기서 차분하게 집중하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앉아도 되고 서도 됩니다. 긴장을 풀고 평소처럼 호흡하면서 들숨에 '예수님' 날숨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은 연습이 됩니다. 이제 하느님 현존 안에 있음을 의식합니다. 하느님은 매 순간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것은 지구의 중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만큼 확실합니다.

공통된 체험

피정은 여정이지만 정해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더 넓은 전망을 찾고 성령이 나를 초대하시는 새로운 곳들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피정자들의 체험은 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몇몇 공통 요소들이 있습니다.

- 피정자들은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찾게 됩니다. 피정이 사람들을 기도 안으로 끌어당기고 많은 사람이 명상이 성숙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놀라움을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 "나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라며 기뻐했듯이 말이지요.
- 피정자들은 이 여정에서 메마름과 의심의 시기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이 피정이 어떻게 돼 가는 거야?"라는 물음이 동요의

전형적인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이 피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절부절못할 것입니다. 결과물을 찾는 것은 메마름의 또 다른 흔한 원인입니다. 피정자들은, 스스로 혹은 지도자나 그룹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있나?"

- 피정자들은 성령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어떤 도전들은 현재 피정자들의 상황과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피정자들은 자기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지평이 넓어지는 체험을 할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나'라는 상자에서 저를 꺼내 줬습니다."
- 피정자들은 자기 삶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삶의 목적을 더욱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교회에 대해 더 깊은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피정자들의 공통된 체험입니다. 한 피정자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 피정자들은 더욱 큰 내적 평화와 평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의 반영으로써 그들이 신앙을 삶에서 실천할 때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수고를 들여야 했지만 결국 좋았습니다!"

동반자의 역할

피정의 동반자로서 당신이 할 일은 몇 가지 역할을 포함합니다.

모임 주관하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피정을 할지는 사실 동반자가 정합니다. 모임을 소집하고, 동반자가 그 모임을 주관하고, 모임 시간과 장소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확인합니다. 피정 시기를 정할 때에는 전례력을 염두에 두세요. 부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수난을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경청하기 모임을 가질 때 동반자의 주된 역할은 듣는 것입니다. 피정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명씩 모두 이야기하도록 격려합니다. 피정자 전체의 역동을 조절하여 한정된 시간 안에 열린 나눔이 가능하게 하면서, 그룹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그룹 가운데 활동하심을 확신하고 성령께 귀 기울이세요. 동반자의 역할은 경청하는 것이고 반드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증인이 되기 동반자는 그룹 구성원들이 이 피정을 할 수 있다는 증인이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경청된다는 확신을 갖고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하기 동반자는 피정자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게 합니다. 동반자와 피정자들은 피정의 전체 여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저 들으세요. 서로의 문제를 '고치거나' 모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동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세요.

동반자의 역할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사목 상담, 성경 공부, 예비자 교리로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나눔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됩니다. 이때 몇 가지를 명심하세요.

- 진지한 대화는 유익하고 거룩하지만 대부분의 그룹에는 방향 안내가 필요합니다. 나눔 그룹의 동반자는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다가 산발적인 대화가 되거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환기하세요.
- 누군가의 문제를 '고치려는' 대화는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 대화를 너무 오래 끌거나 너무 분산시키면 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할 일은 그룹원들이 해당 주간의 주제를 통해서 기도에서 무엇을 체험했는지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 동반자가 개입해서 다음 이야기로 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거나, 이번 주 주제에 집중하게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면 좋은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흔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아주 관대하고, 그에 대해 하느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을 계속 격려하세요.
- 어떤 피정자들은 묵주기도나 매일 독서 등 기도 패턴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시작한 이 피정을 매일 기도로 삼는 것이 좋다고 알려 주세요.
- 모든 사람이 기도 중에 분심을 겪습니다. 정신과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든지 하느님과 함께 머무세요. 하느님이 그 문제를 당신이 다루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 날의 기도 주제로 돌아오세요.
- 일기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쓰지만, 이 책에도 기록하세요. 기록을 나중에 다시 읽어 보세요. 진전을 돕는 좋은 방법입니다.
-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명상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느님께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도록 격려하세요.
-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막힙니다.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 어떤 이들은 머리에만 머뭅니다. 다른 피정자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느끼는 감정과 느낌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하느님이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 같은) 신학적 문제가 등장하면 신학적 설명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체험'에 머무세요. 더 좋은 진행 방법은 그 문제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잠시 두도록 제안하고 그 날의 기도 자료에 머무세요. 이런 질문이 대개는 우리를 기도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언급하세요.
- ("그들을 세리처럼 대하라!"는 등) 예수님의 도덕적 가르침에 관한 질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피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마음 쓰는 방식에 집중하도록 초대합니다. 무엇이 그분을 움직이고 그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목합니다.
- 가장 좋은 기준: 논쟁이나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령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제1주간
하느님은 나를 친밀하게 돌보신다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적어둔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 피정자들이 교재 구성에 적응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단상을 읽고, 성경 구절로 기도하고, 한 걸음 더를 살펴보고, 메모하고 있습니까?
- ▶ 피정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에 들어갔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자료를 읽거나 공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하루 중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재의 구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각 부분을 하나하나 보여 주고, 질문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 ▶ 반복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체험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 ▶ 궁극적으로 피정자들에게서 관대함과 큰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매일 자료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격려하세요.
- ▶ 그룹 모임에서 개방하고 신뢰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북돋우세요.
- ▶ 처음 몇 주 동안에는 피정자들이 자기 기도 내용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에 대해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 주간 매듭짓기 요점들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 ▶ '친밀하게'나 '성숙하게'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지 들어 보세요. 이 주간 청하는 은총에 나온 '성숙하게'라는 말이 가슴과 상상력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물으면서 열망을 갖고 피정을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 ▶ 분명히 기도에 관한 질문과 코멘트들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피정자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우리가 주님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말씀드린다고 일깨우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것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일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할 말은 요구requirement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의desire에서 온다고 말해 주세요.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 ▶ 중요한 관계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유지되는지에 관해 피정자들이 숙고해 보면 유익하겠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는 시간, 정직함, 경청, 배움이 필요합니다.
- ▶ 이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임 후에 기록해 두세요.

제2주간
하느님의 계획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 2주간을 마칠 즈음이면 사실상 피정자들은 피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 피정 기도가 매일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차지한 사람은 피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 피정 체험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는, 하느님의 창조가 갖는 초월성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나를 위한 하느님의 열망이라는 깊은 친밀성을 향합니다. 어떤 피정자는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하느님의 상상력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면 놀라워요. 창밖만 내다봐도 녹색이 저렇게나 다양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느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느님이 저를 빛 속에서 창조하시고 내 안에 빛을 창조하세요."

▶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것이 하느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라는 말에서 인내심을 볼 수 있습니다.

▶ 신뢰가 자라면서 감사가 함께 자랍니다. "저는 저의 호흡과 심장 박동, 그리고 제 몸이 모두 함께 건강히 작동하는 놀라움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느님은 저를 이런 식으로 창조하고 계셔요."

▶ 소수의 피정자는 하느님의 사랑을 깊은 친밀함으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피정자가 그 체험을 말로 옮기지 못하는 것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체험은 풍부한 열매를 맺을 것이므로 봉사자나 조원들은 그 체험을 피정자에게 맡겨두고 말로 표현하거나 설명을 해 보라고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봉사자가 창조주의 선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음미하거나 서서히 흡수하게 하는 식으로 영감을 주는 것이 피정자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소수의 피정자들은 섬김과 활동 쪽으로 당장 생각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정의 이 시점에서는 주님이 하시는 일,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놔두는 것이 은총입니다.

▶ 모임을 따라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동반자가 메모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주간
하느님의 사업

모임 전에

- 한 주간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2주간의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자들에게 진지한 내성(內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 자아의 품위에 대한 체험이 깊어짐에 따라 피정자의 기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데 유의하세요.

▶ 피정자들이 하느님의 능동적인 활동에 자신을 더 개방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정을 계속해 가는 느낌을 감지하거나, 활달한 관계를 가로막는 제약들에서 다소 자유로워지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내적 생활과 자신의 활동을 결합시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형성되어 가는 습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신앙을 지니는지 볼 수 있습니다.

▶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들'을 내놓거나 서로 '고쳐 주려고' 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룹의 초점을 발표자의 체험에 맞추도록 하세요.

▶ 성령께서는 기도와 기도 자료들을 통해서 피정자들을 도전할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막지 않는 것이 은총입니다.

▶ 피정자는 피정 기도로써 하느님이 주신 마음의 갈망(열망)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떤 피정자는 자신의 열망을 분석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생활에 대해 '갈망, 욕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떤 피정자에게 불편이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이 전체 설계도의 일부임을 피정자들이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한 피정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체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끼워 맞춰지더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잘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느님은 우리에게 당신 모습을 잠깐 비쳐 주세요. 하느님이 우리와 동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은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 피정 기도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수준의 평온함을 열어 줄 수 있습니다.

▶ 피정자들은 삼위일체 하느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현실을 수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관계에 따르는 책임감을 성숙하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나의 빛을 밝게 빛나게 하는 것이 뭐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불붙는 이게 뭐지?"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제4주간
혼돈을 떠나 그분의 모상에로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의 흐름에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안내자는 피정자의 말을 잘 듣고 각 피정자가 주어진 기도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 이 주간의 은총은 내밀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갈망은 자신의 거룩하지 못한 점들을 보게 합니다.

▶ 자유는 내면적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에 걸맞은 개방과 성장, 새로운 인식과 갈망의 감각이 나타나는지 경청하세요.

▶ 피정자들에게 피정이 요구하는 기도와 활동이 벅찰 것입니다. 동반자는 혼돈을 직시하고 자신의 엄격한 질서를 떠나보내는 데 대한 저항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리라는 믿음을 피정자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피정자들에게 자신이 잘하는 기도로 돌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들에게 와 주십사고 주님을 찾고 묻고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 성장과 그에 대한 갈망은 성장에 요구되는 기다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밀과 가라지를 처음에는 분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차츰 명료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신뢰가 도움이 됩니다.

▶ 피정자들은 유혹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탐색하면서,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유혹이 다가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단히 미묘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하느님이 유혹을 허용하시지만 위로도 주신다는 데에서 크게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떤 피정자들은 '법'이 도움도 되고 걸림돌도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형성된 내적인 태도가 '법'을 알려 주고 법이 의미를 갖게 합니다.

▶ 영적인 나눔은 피정자들이 서로 개인 생활을 잘 모르는 경우에도 특별한 연관성을 갖게 합니다. 지금쯤이면 피정 그룹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동반자는 개인 기도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균형감을 갖고 그룹 내에서의 영향력에 유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5주간
세상의 죄, 내 안의 죄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자들의 상태가 더 조용하고 성찰적이며 내적일 것입니다. 죄에 대해 기도하면서 더 깊은 공간과 체험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 더 긴 침묵을 가지면서 신뢰가 구축되고,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인식이 커집니다.

▶ 나눔을 들으면서 피정자가 죄 묵상에 나아가는지 죄에 대해 기도하는 자기 방식을 찾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피정자가 자신의 부서짐과 죄를 바라보는 동안에 하느님의 사랑에 굳게 의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로 자신에게 집중하기 쉽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나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들으면, 죄는 우리에게 너무 크지만 하느님에게는 그다지 큰 것이 아니라고 그룹원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피정자들 가운데에 죄는 자기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오는 것이고, 세상의 죄는 쉽게 인정하지만, 내 안의 죄는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정 문화에 사는 것이 그 문화가 내 안에 살아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을 간단히 상기시켜 주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죄로 인해 어쩔 수 없고, 무력하고 부서진 느낌을 갖는 것이 이 주간의 은총 체험입니다. 혼란으로 느끼거나 슬픔으로 느낄 수도 있고 "되는 일이 없다."는 좌절감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 피정자의 시야를 넓혀서 주님이 느끼는 슬픔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와 달리 죄와 싸우면서 어쩔 수 없거나 무력하지는 않습니다.

▶ 피정자들이 감사의 느낌을 갖도록 격려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했다. 모세는 그들이 하느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느님이 우리도 뽑고 계신다." 주님은 우리가 궁지에서 헤매게 버려두지 않고 오시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 내십니다.

제6주간
나의 죄, 하느님의 자비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금 피정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어디에서 시작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성찰해 보세요. 어떤 도전들을 마주했는가요? 그룹의 성장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자들은 죄에 대해 또 자신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의식할 겁니다. 자신의 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이번 주간에 주어지는 개별적인 은총입니다. 그룹원들이 죄에 이름 붙이는 것을 잘 들어 보십시오. 그러나 그룹원들이 개별적인 죄를 나누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죄의 구렁에 빠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 그들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은총이 나눔에서 드러나는지 들어 보십시오. 피정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당신은 기도의 초점을 상기시켜서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도의 초점을 하느님이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시는지에 맞춰야지 우리가 죄를 가지고 뭘 할지에 맞추면 안 됩니다.

▶ 피정자들 중에서 하느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자비에 응답하려는 열망이 자라나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 피정자들이 지난 주와 달리 죄의 무게와 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한 피정자가 말한 것처럼 "기쁨을 속일 수가 없어요."

▶ 당신은 피정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다는 느낌이 공존할 수 있음도 알 것입니다.

제7주간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이번 주간 기도 체험은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보내신다는 데에 초점을 맞춥니다. 피정자들의 기도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는 통로임을 인식시켜 줄 것입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거룩함이 단지 '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진리를 수용하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인(全人)'으로 살고 기도할 때에도 자아가 전체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전체적인 인간으로 구원하고 성화합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예수님이 육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 데에서 깊은 격려를 느낄 것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생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계속적인 창조에 관해 앞에서 한 기도가 확장됩니다.

▶ 예수님의 육화는 인성이 신적인 본성을 지닐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피정자들은 예수님과 '근친'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심화시킵니다.

제8주간
나자렛 예수, 우리의 모델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피정자들 가운데 피로감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피정 여정을 제법 많이 왔다고 격려해 주세요.

▶ 피정은 경주가 아닙니다. 피정자들에게 심호흡을 권해 보세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그분을 알게 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 피정자들이 예수님의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을 마주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성을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합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느낌에 유혹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의 은총은 협력의 은총입니다. 이 피정자들이 할 일은 스스로 성령의 흐름에 맡겨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형성해 주시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알려 줍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컨대 "그들을 세리처럼 여겨라!"고 하는 말씀에서 혼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예수님의 행동을 관찰해 보라고 권고하세요. 예수님이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요?

▶ 어떤 피정자들은 예수님이 동료를 원하신 것에 착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주목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초대로 여기도록 격려를 해 주세요.

제9주간
죽음을 거쳐 영광으로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대개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의 수난을 통해서 기꺼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수난을 그분이 사랑을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당신 수난을 통해서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이 주간에는 그룹 나눔이 더 차분하고 조용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난 기도가 깊은 내면으로 이끄는 겁니다. 조원들 사이에 침묵을 지킴으로써 신뢰가 커집니다.

▶ 당신은 예수님의 수난 안에서 그분을 동반하며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피정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 몇몇 피정자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거나 슬픔에 빠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슬픔을 나누라고 초대하세요.

▶ 용서에 관한 성찰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힘든 방식으로 도전하실지라도 주님은 그 도전에 직면할 은총을 언제나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일깨워 주세요.

제10주간
늘 친교를 살아가기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이 주간은 나와 주님의 관계가 내 일상과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피정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일상에 통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일상을 기도에 통합하고 있는지 들어 보십시오.

▸ 실망과 위로에 관한 질문들을 받을지 모릅니다. 당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 피정자들이 자기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소속감'보다 더 폭넓은 개념인데, 이제 그들과 함께 가는 '이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감'이 포함됩니다.

▸ 어떤 피정자들은 피정의 '결과물'이나 '목적'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피정자들에게 피정 기도에 계속 집중하도록 하고 체험의 결과물은 성령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기시라고 해 보세요.

제11주간
성숙한 제자도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이번 주의 은총은 하느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를 심화합니다. 피정자들이 이런저런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 성숙한 제자는 내면생활의 상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피정자가 내면생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수용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동반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피정자가 자기 두 발로 서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와 영적 독서를 계속하도록 격려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다음 주 마지막 모임을 준비하면서 피정자들이 처음으로 돌아가 피정 동안의 메모와 체험을 돌아보도록 초대하십시오. 어디서 성장하고 변화했다고 알아차릴까요? 어디에 도전과 초대가 남아 있을까요?

제12주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모임 전에

- 한 주 동안 받은 은총을 기록하고 주간 말미에 표지석을 돌아봅니다.
- 지난 만남에서 적은 노트를 살펴보세요.
- 피정을 마치면서 그룹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정하세요. 그들의 성장을 언급하거나 피정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동반자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겠어요.

유의하여 고려할 점들

- ▸ 피정 전체를 돌아보거나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선 이번 주 기도에 집중하세요.
- ▸ 피정자들이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는 데 열려 있는지 잘 들어 보세요.
- ▸ 이제 자신의 기도 방법을 찾은 피정자들은 주님께서 주시고 계신 그 기도를 계속하도록 격려하세요.
- ▸ 다음 단계가 뭔지 묻는 피정자가 있을 것입니다. 나눌 만한 생각이 있겠지만, 피정자 자신의 원의와 원천을 탐색하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기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입니다. 다음 단계가 뭔지 피정자들이 주님께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 피정자들의 기도와, 헌신, 나눔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동반을 허락해 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반자가 감사의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메모

영적 지도와 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만난 많은 분이
신앙생활에서 뭔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바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신도 그 감정과 갈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책은 하느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려는 갈망,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분명히 알려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는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이 갈망이 기도를 부릅니다.

— 저자 서문에서

값 15,000원
03230
9 788997 108398
ISBN 978-89-97108-39-8